

일본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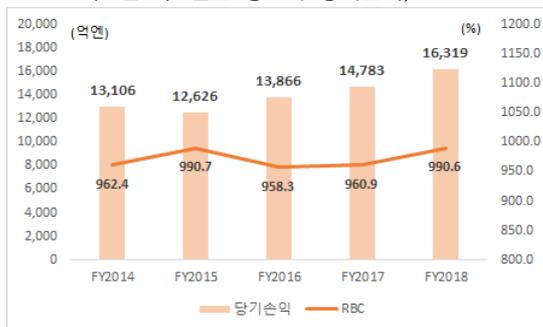
요약

일본 보험산업은 1990년대 후반 여러 보험회사가 파산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품 구조조정,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, 비차익 및 사차익 극대화 등을 통해 저금리에 대응하였음. 보유계약을 전환하거나 가격과 서비스 경쟁으로 신계약을 증가시킴. 자산은 대출 및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 비중을 확대함. 사업비 절감과 사차익 확보,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이차역마진 금액을 감소시킴. 국내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방안과 정책 수립이 필요함

1.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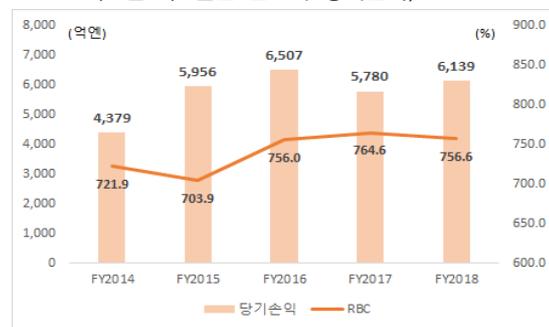
- 일본 보험회사는 1980년대 외형 확대 경쟁 이후 버블 붕괴 및 저금리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여러 회사가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여주고 있음
 - 1980년대의 일본 보험산업은 자산의 버블 형성 및 팽창에 따라 공격적 경영을 전개하여 예정이율 인상과 저축성 상품에 주력하는 규모 확대 경쟁을 하였음
 - 1990년대 초 버블 붕괴에 의한 자산 부실화와 저금리에 따른 이차역마진으로 인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7개 생보사와 1개 손보사가 파산하였음
 -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한 결과 당기손익 및 RBC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줌

〈그림 1〉 일본 생보사 당기손익, RBC



자료: 일본 금융청

〈그림 2〉 일본 손보사 당기손익, RBC



자료: 일본 금융청

- (상품 구조조정 및 혁신) 예정이율 인하, 사업비 절감, 상품 차별화 등의 상품 구조조정 및 혁신으로 위기에 대응함
 - 버블 붕괴 후 신계약의 예정이율을 신속히 인하하였으나 보유계약 전체 부담금리 인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전환계약을 활용함

- 전환계약 비중은 1996~2000년대에 전체 신계약의 40~50% 수준이며, 정기부 양로보험에서 정기부 종신보험으로, 정기부 종신보험에서 고액정기보장 종신보험 등의 형태로 전환함
 - 중소 생보사들은 건강체 할인, 비흡연자 할인, 저해지·무해지 상품 등 가격을 낮춘 상품을 개발하고 대형사는 가격 차별화보다는 부가서비스 개발을 통한 혁신을 추구함
 - 대형사인 일본생명은 보장, 의료, 연금 등을 하나의 종합계좌에서 관리하는 부가서비스를 개발함
- (자산 포트폴리오 개선) 위험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ALM 기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
- 1990년은 대출 38%, 주식 22%, 채권 8%에서 2010년에 대출 13%, 주식 7%, 채권 42%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하는 한편, 해외증권은 2010년 14%에서 2018년 25%로 증가되어 수익성도 고려함(2012년에 외국환 한도 폐지함)
- (금리 위험 대응) 비차익과 사차익 극대화, 준비금 추가 적립을 통해 금리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함
- 비차익 확보를 위해 모집수수료 개편, 지역총괄본부 폐지, 점포 통폐합, 고객센터 업무에 자동화·무인화 도입 등으로 사업비를 절감함
 - 사차익의 장기간 확보를 위해서는 그간 5년 주기의 경험생명표 개정을 11년 주기로 개정함 (1996년 작성 후 2007년, 2018년에 개정하였음)
 - 일본 대형 생보사들은 2007년부터 고금리 보험계약에 대해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이차역마진 금액을 감소시킴

2. 평가 및 대응

- 일본 보험회사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은 단기적으로 이익이 축소되고 사업비는 증가하나 보유계약의 부담금리 완화를 위한 대책이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0년부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함
- 중소 우량사와 대형사는 1990년대 초 채권 위주로 자산구조를 빠르게 재편하였으나 파산한 보험사는 기존 경영 관행으로 인해 대응속도가 늦어져 자산구조 개편에 실패함
- 국내 보험회사는 예정이율 인하, 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, 사업비 절감과 함께 고금리 보험계약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저금리에 대응할 수 있음
- 금융 당국은 해외투자한도(총자산의 30%)를 완화하고, 준비금 추가 적립과 더불어 고금리 보험 계약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

노건엽 연구위원
gynoh@kiri.or.kr